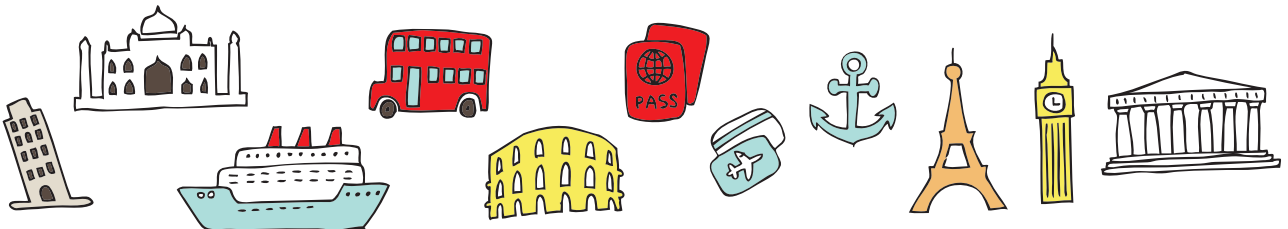




세계 문화재 숨은 그림 찾기

세계의 랜드마크와 설레는 여행을 상징하는 그림이 숨어 있어요.
자유롭게 찾아보고 이것이 무엇일지 맞춰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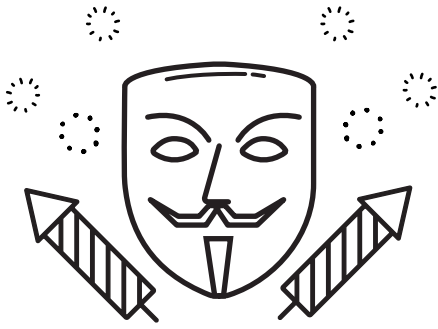
★★★

달력 속 세계사 컬러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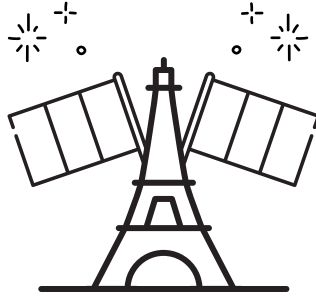
오늘의 날짜와 연관된 세계 역사 아이콘을 색칠해 보세요.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함께 드린 세계지도에 표시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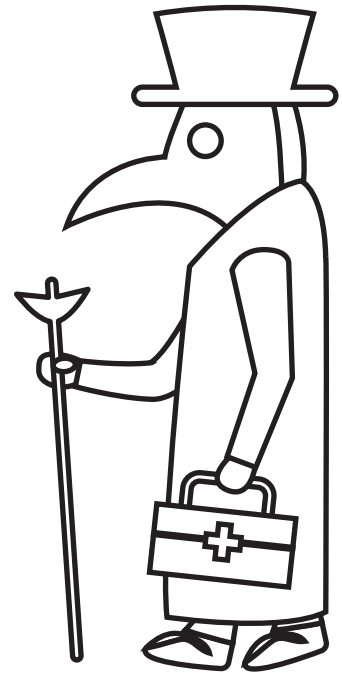
11.5 가이 포크스 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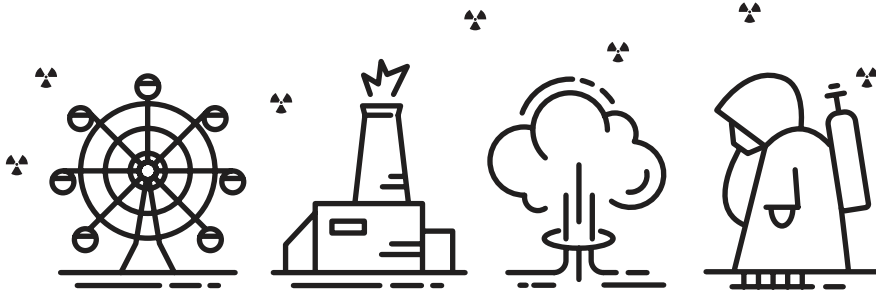
7.14 프랑스 혁명 기념일



4.7 세계 보건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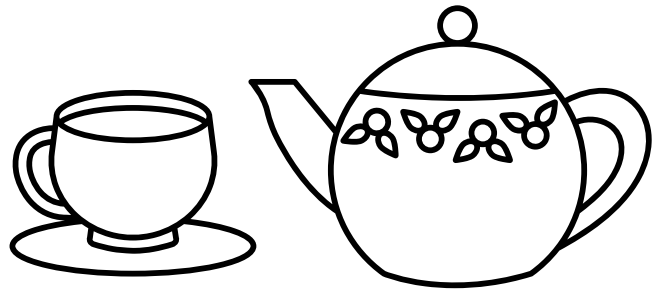
4.26 체르노빌 원전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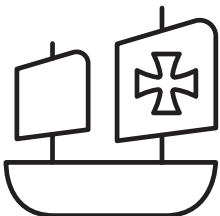
7.4 미국 독립기념일



6.26 세계 마약 퇴치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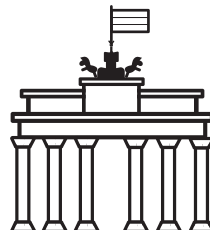
10.9 콜럼버스의 날



3.8 세계 여성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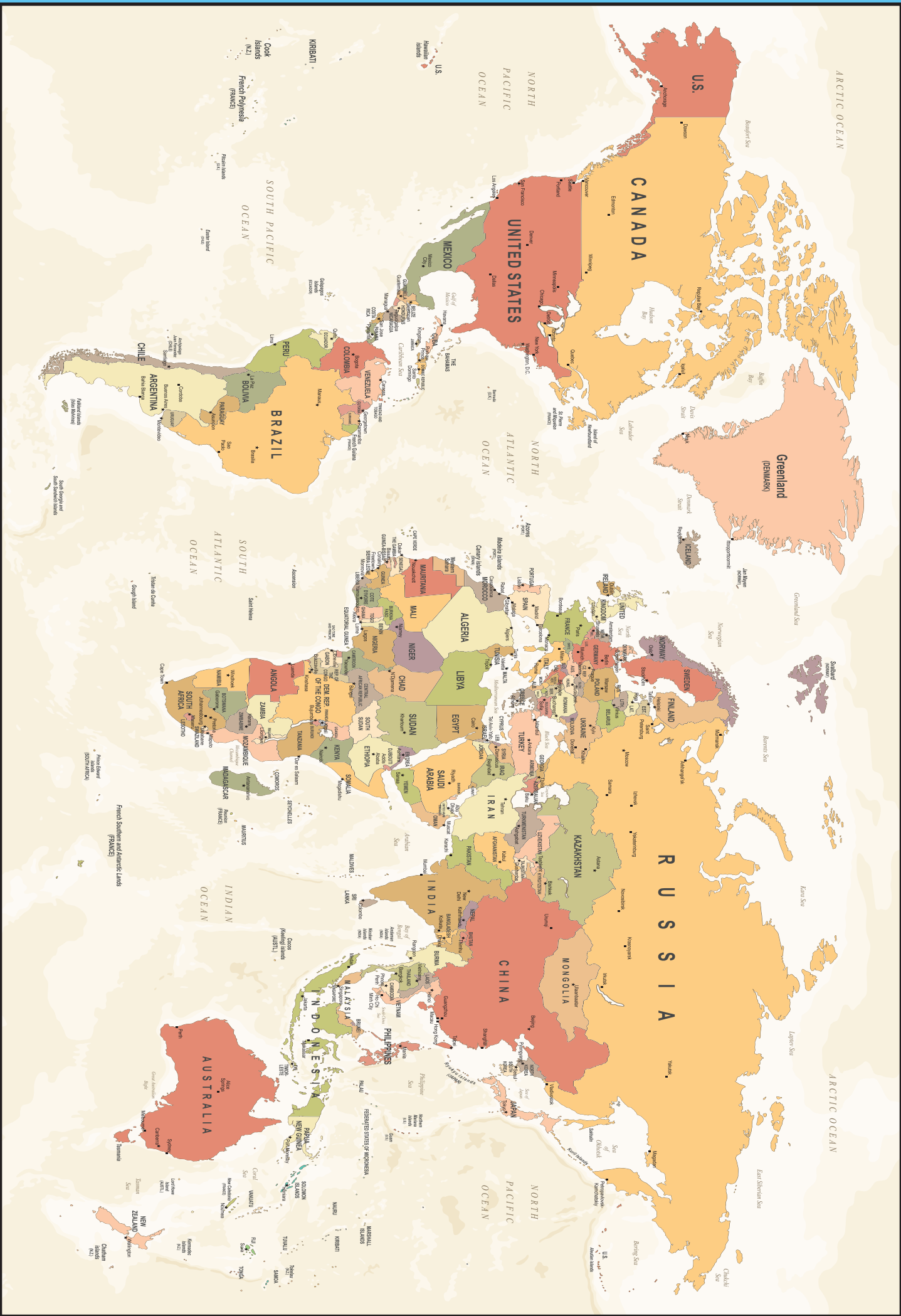


11.9 베를린 장벽 붕괴



2.17 브라질 카니발 개막일





이미지 shutterstock, 종이 사이즈로 인해 지도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생각 확장하기 놀이



예술가의 잘못된 정치적 행동과 그의 작품을 별개로 봐야 할까요?



2011년, 이스라엘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국민적 비난을 무릅쓰고 독일에 서 바그너 곡을 연주한 적이 있어요. 당시 지휘자 로베르토 파테르노스트로 Roberto Paternostro는 “바그너 사상과 반유대주의는 끄찍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바그너는 위대한 작곡가였다”면서 인물과 그의 음악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바그너는 히틀러와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바그너는 살아생전 유대인을 비하하는 작품을 썼고 히틀러가 이를 이용했기 때문에, 바그너도 어느 정도 나치가 저지른 만행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의 작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인물의 행적과 작품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그너는 히틀러의 시대를 살지 않았을뿐더러 그의 모든 작품이 반유대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비슷한 논란은 우리나라에도 있답니다. 우리는 35년간 일제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독립을 위해 노력한 멋진 분도 계시지만,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도 많았죠. 특히 1930년대 후반,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을 위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글을 쓰는 작가도 많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이광수, 채만식, 서정주 같은 작가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작품은 현재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사적으로 영향력이 크답니다. 과연 교과서에서 그들의 작품을 배우는 것이 옳을까요? 아래 입장을 읽어 보고, 여러분의 입장도 간단히 적어 봅시다.

반대 : 교과서는 학교 학습의 중심이 되는 교재로, 특히 어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문학은 민중과 시대에 대한 아픔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문학가는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해. 학생이 친일 작가의 작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찬성 : 친일 작가의 친일 활동을 당연히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 하지만 그 작품에 문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 그들의 행적과 작품을 구별해서 학습하는 건 의미 있지 않을까?

나의 생각은? 글로 쓰거나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